김행숙 시 모음

**- 번개에 대해(사춘기. 97)**

고백건대, 내게서 뚝 떨어진 곳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 번개에 대해

번개 양편의 구름에 대해 나는 올려다보는 자이다. 이때 내가 맞은 비의 굵기에 대해

잘 말할 수 없다. 나는 편향된 자이기 때문이다. 번개에 대해

뚝 떨어진 곳에서 정전이 되기도 하지만 구름은 다치지 않는다. 구름은 구름의 규칙이 있다.

나는 번개에 대해 수정하지 않겠다.

**- 폭풍 속으로(사춘기, 123)**

으으으 달릴 뿐이다 입에서 쇠 냄새가 난다 무엇에 대한 맹목 때문인가? 무엇에 대한 공포 때문인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무엇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으으으 느낀다 내 속도는 잡아끄는 머리카락의 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피가 힘차게 당겨진다 나는 變身을 도모한다

입에서 입에서 쇠 냄새가 난다 나는 순수해진다 나는 一點으로 수렵될 것이다

집중은 부분적인 마비를 동반한다 심장이 뛰는 속도에 비하면 으으으 내 동작은 슬로우 모션이다 어떤 것도

먼저 멈추지 않겠다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한 直前이다

아직

**- 죽지 않는 그림자(무슨 심부름, 92)**

**- 미완성 교향악(사춘기, 73)**

소풍 가서 보여줄게

그냥 건들거려도 좋아

네가 좋아

상쾌하지

미친 듯이 창문들이 열려 있는 건물이야

계단이 공중에서 끊어지지

건물이 웃지

네가 좋아

포르르 새똥이 자주 떨어지지

자주 남자애들이 싸우러 오지

불을 피운 자국이 있지

2층이 없지

자의식이 없지

홀에 우리는 보자기를 깔고

음식 냄새를 풍길 거야

소풍 가서 보여줄게

건물이 웃었어

뒷문으로 나가볼래?

나랑 함께 없어져볼래?

음악처럼

**- 이 책(타인의 의미, 123)**

**- 이 사람을 보라(타인의 의미, 52)**

**- 아담의 농담(에코의 초상, 17)**

**- 모르는 목소리(에코의 초상, 115)**

**- 회화 수업(타인의 의미, 27)**

**- 여자들의 품(사춘기, 43)**

영원히 여자들 품에 안긴 여자애이기를 원했어요. 나는 그녀들의 얘기를 귀에 꽂고 다녔어요. 내 입에서 그녀들이 흘러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녀의 테이프가 늘어져서 우린 조금씩 어지러워지거나 천천히 섞였지만

이미 우리는 다 외워버렸는걸요. 어쩌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녹색의 시냇물이 삼부아파트 101棟 102棟 103棟 …… 새를 흐르고

우린 영원히 발을 담그고,

**- 삼십세(사춘기, 12)**

네겐 햇빛이 필요하단다. 여자를 나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다. 햇빛은 어디 있지요? 난 뭔가 만지고 놀 게 필요해요. 나는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여자도 어딘가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엄마, 라고 말했다.

얘야, 너는 잠시 옛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란다. 그리고 세상은 많이 변했단다. 여자를 유모차를 밀던 손을 놓았다.

구른 건 바퀴뿐이었을까? ……내 차가 들이받은 나무는 허리를 꺾었다. 나뭇잎 나뭇잎이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를 나는 들은 것 같다. 아아아, 내가 처박힌 여기는 어딜까?

당신, 왜 그래? 헝클어진 당신이 묻는다. 나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다. 내가 어디고 가고 있었나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당신을 올려다본다.

당신도 어딘가를 올려다본다. 답을 구하는 태도는 누구나 유아적이군요. 그런데, 구른 건 정말 바퀴뿐이었을까요?

나는 엄마, 생각을 했다. 나는 방향을 틀기 위해 잠시 후진을 해야 한다. 천천히 핸들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 다섯 살을 떠나며(이별의 능력, 124)**

누나, 다섯 살은 완벽한 나이입니다. 나를 좀 보아요. 그리운 나를. 다섯 살에서 다섯 살까지 늙어버린 나를 좀 보아요. 기분 나쁜 기침소리가 내게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세상은 아파트 13층 베란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커다란 아버지가 나를 거꾸로 들고 서 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누나도 봤나요? 다섯 살이 하는 실수는 언제나 세상처럼 커요. 그곳은 허공입니다. 나는 떠 있어요. 새는 공중에서 멈출 수 있나요? 그곳에서 전부를 보았습니다.

흑흑흑, 흑색의 아버지는 가장 고요한 침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침상에서 기도를 드린답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것은 참으로 고독하고 열정적인 리듬입니다. 눈을 감는 것이 정녕 휴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입술만으로 한 달째 떨고 있어요. 아버지의 소원은 죽는 것입니다. 한 달째 그렇게 나를 꼬시고 있어요. 나는 외면하고 있어요. 아직 나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떨림은 분명히 음악이에요. 누나, 그렇게 믿어요. ……. 나는 겁이 나니 동생들처럼 과일 바구니 속에 넣어줘요. 강물에 띄워줘요. 복숭아 냄새, 사과 냄새를 낼게요. 나는 검은 포도즙 한 방을 흘릴 수 있어요. 나는 다섯 살. 아주 먼 나라로 가서 훌륭한 젊은이가 되어요. 누나는 더 아름다워져요.

과자의 집, 술의 집, 자매의 집, 노인의 집, 사랑의 집은 비슷한 모양으로 지어져서 나는 우편물을 잘못 배달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렇지 않아도 되는 걸까. 얘들아, 갈까마귀들아, 나는 내 동생을 어디에 떨어뜨렸니? …/… 그래요. 나의 심부름꾼 누나, 언제나 이곳은, 다시 이곳은 아니었어요. 그뿐입니다. 그리고 실수는 언제나 그뿐이에요. 그뿐. 누나를 사랑해요. 오, 그리운 나의 누나,

**- 낮부터 아침까지(무슨 심부름, 32)**

**-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이별의 능력, 68)**

**- 일요일(이별의 능력, 26)**

**- 옆에 대하여3(이별의 능력, 54)**

**- 밤에(에코의 초상, 20)**

**- 얼굴의 탄생(이별의 능력, 38)**

**- 더 작은 사람(이별의 능력, 20)**

**- 호르몬그래피(이별의 능력, 32)**

**- 눈꺼풀 속에 눈꺼풀이 감길 때(사춘기, 61)**

그가 눈꺼풀을 쓸어 덮어줄 때 나는 눈꺼풀 속에 또 다른 눈꺼풀이 찰칵,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눈꺼풀 바깥에 그가 있고

눈꺼풀과 눈꺼풀 사이에 그가 있고

눈꺼풀 안에 그가 있다. 나는 동시에 세 명의 남자를 만난다.

눈꺼풀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으로 세수를 했다. 그는 냉정했지만 눈은 녹아 그의 얼굴에서 물이 되었다. 얼굴에 얼룩진 검은 물이 그가 더러웠음을 말해주었다.

너는 정말 눈꺼풀을 닫은 여자니? 눈꺼풀 바깥에서 그가 물었다.

눈꺼풀 속에 또 다른 눈꺼풀이 감길 때 눈꺼풀과 눈꺼풀 사이는 그의 독방이다.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가 중얼거렸다.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눈꺼풀에 머리를 박았다.

제발 눈을 떠. 그가 소리를 질렀지만, 정말 현실은 눈동자 바깥에 있을까?

너무 깊이 들어왔구나. 여기서 언제 우리가 만난 적 있니? 나는 주인같이 말했지만 그가 골 속을 유령처럼 흘러다닐 때 나는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는 그를 흔들어 깨웠어야 했을까? 그는 너무 오래 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눈꺼풀 바깥에 내가 있고

눈꺼풀과 눈꺼풀 사이에 내가 있고

눈꺼풀 안에 내가 있다.

**- 유리의 존재(무슨 심부름, 36)**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무슨 심부름, 9)**

**- 해변의 얼굴2(이별의 능력, 28)**

우리는 모두 그 얼굴을 밟고 있었다

영원한 미소 위의 신발이거나

썩은 이빨 위의 맨발이거나

우리는 모두 그 얼굴 위에서 휴가를 보냈다

세번째 잠에 빠진 사람과

네번째 잠에 빠진 사람과

처음인 듯 흑설탕 같은 잠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얼굴에 영혼과 발목을 묻은 채, 그 얼굴을 넘어서 멀리 느끼거나

점점 가까이 감촉하고 있었다

가까이 큰 새가 날고

멀리 작은 새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 라라라 음악의 계단처럼

큰 새가 먼저 사라지고 작은 새가 나중에 사라졌다

그 얼굴의 끝이 세계의 뒷면으로 반원처럼 돌아가고

메아리처럼 다시 한 번 돌아오고 있었다

**- 코러스(이별의 능력, 121)**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한 당신은 영원히 무대입니다. 당신은 조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말씨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흐려질 때

우리는 천국의 입술처럼 열립니다. 사랑하는 이여, 한 걸음 물러서세요. 거긴 낭떠러지랍니다. 객석엔 몹시 지루한 사람들이 찢어질 듯 입을 벌리고 있어

요. 한 걸음 물러서서

맨손체조를 하세요. 고독한 운동 후에 당신은 우리의 앞에 서서 날아갈 듯 무너질 듯 노래하세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한 영원한 무대.

원한다면 언제든 막을 내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여, 막 뒤에서 당신은 몇 개의 의자를 옮기고

우리의 긴 드레스에 반짝이를 붙였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에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한 당신은 영원히 무대. 믿음은 부족했지만

당신은 정면을 응시할 줄 압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법을 압니다.

**-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이별의 능력, 147)**

더 휘저어라. 나는 충분히 섞이지 않았다. 나는 생각 못한 알갱이처럼 남아 있어서 목에 걸리고

길고 외로운 팔을 욕조 밖으로 늘어뜨리는 것이다. 당신의 목욕시간은 너무 길어, 당신은 소리치는 것 이다.

아주 길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나는 소리치는 것이다. 식사시간보다 목욕시간보다 더 길어지면 긴 것, 연약한 것, 갈 곳 없는 것,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극단적인 기침이 어디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 아닌 것처럼 구부리고

구부렸다, 폈다, 구부리는 운동 속에서 나는 계속되지 않는다. 나는 불연속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사람들을 떠난다.

**- 호흡2(타인의 의미, 51)**

**- 어딘가, 어딘가에는(에코의 초상, 98)**

**- 그림자가 길다(무슨 심부름, 64)**

**- 누군가의 호흡(타인의 의미, 56)**

- **잃어버려지지 않는 찾아지지 않는(에코의 초상, 132)**

**- 한 사람3(이별의 능력, 93)**

잔디는 어디까지 자라나. 잘 자라서 잘 죽었나. 푸릇푸릇 똑 같은 발목으로 일어서는가. 버려진 정원. 한 발자국 더 뒤에 물러서 있는 정원처럼.

밤과 어둠의 차이를 우리는 정원의 어느 구석에서 알아챘는가. 밤의 정원. 저녁의 정원에도 정혜, 은혜, 미혜 같은 명찰이 붙여진 나무들이 잎사귀, 그림자, 잎사귀, 그림자를 드리우나. 정원의 여자들은 어디로 다 흩어졌나.

우리들은 어디에 모여서 한 사람이 되었나. 우리는 이곳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이름들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투명테이프처럼. 안녕. 안녕. 금방 버려진 이름들과 함께하였던 우리의 유머와 블랙. 사랑과 블랙. 우리들은 사랑스럽고 드디어 모호해진다.

정원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들의 뒤로 물러섰나. 끝에서 끝을 넘어갔나. 한 발자국의 깊이에 대해서.

한 발자국의 어둠에 대해서. 내가 천천히 걸어 다니던 시절에 나는 생각했을까. 버려진 정원에서 잔디는 어디까지 자라나. 겨우 그것을 얼마나 덮었나. 나는 어떻게 점점 커졌나.

**- 일순간(무슨 심부름, 30)**

**- 그 복도(무슨 심부름, 75)**

**- 노랫말처럼(무슨 심부름, 106)**